

교통섬 철거 횡단보도 확대 노후 보도블록·적치물 정비

서울 중구, 교통안전계획 시행 공공시설 '내편중구버스' 개선 급경사지 건물 블라드도 설치

서울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배형우)가 교통섬을 철거해 우회전 사고를 예방하고, 횡단보도를 늘려 보행 안전을 강화한다.

여기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어린이 교통안전도 한층 강화한다.

구는 '2026년 중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체 면적 대비 도로 비율은 18.9%로 서울시 자치구 중 네 번째로 높다.

구는 매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구는 올해 '내편중구버스' 운영 개선, 교통섬 철거, 단산로 보행환경 개선, 연속성 있는 보행로를 구축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먼저, 읍지로5가 교차로의 교통섬을 철거해 차량 회전각을 확보하고,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한다. 광희초등학교에서 버티고개까지 이어지는 단산로 일대에는 가로정원을 조성하고 노후 보도블록과 적치물 등을 정비한다.

창계천 모전교, 금곡여중 앞 등 보행로가 끊긴 6곳에는 횡단보도를 신설해 통행을 잇는다.

이밖에도 지난해 도입한 무료 공공기관 셔틀 '내편중구버스' 운영을 개선해 주민 이동 편의를 높인다. 도로와 교통시설도 안전하게

정비한다. 이면도로 일방통행로의 우회전 구간에 유색 유도선을 그려 시민성을 높이고, 급경사지 주변 건물에는 코너 블라드를 설치해 의박 충돌 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산방종합복지관 주변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하고, 악수역 사거리 등 12곳의 노후 바닥 신호 등 18개를 교체한다.

노후된 간이 승차대도 교체하고, 스마트미터 20곳과 버스정류소 냉·온열의자 102개는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방도 강화한다. 어린이와 노인 보호구역에 도로표지판과 LED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남산초·장충초·충무초·청구초 등 주요 통학로를 정비한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경남도, 2030년까지 4067억 들여 낙동강 수질 개선... 녹조 발생 대비

영양염류 하천 유입 차단... 취·정수장 관리 강화도

경남도는 올해를 낙동강 녹조 발생에 대비해 오염원 사전 저감부터 취·정수장 관리까지 아우르는 '2026년 낙동강 녹조 발생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낙동강 수질개선 종합대책(2026~2030

년)'에 따라 총 4067억원을 투입해 다양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그린빛물인프라 조성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주민참여형 녹조비점 집중관리 ▲폐양액 처리 수질개선사업 등이다. 특히 낙동강 분류로 유입되는

지류·지천의 오염을 막기 위해 낙동강수계 47개 지방하천에 대한 오염 실태 조사와 환경개선을 병행해 나간다.

도는 법적 조류경보제(관상-경계-대발생) 보다 앞선 자체 '우려' 단계를 운영해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이달부터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조류경보 기준치에 도달하기 전 ▲오염원별 사전 점검 ▲하·폐수

처리장 종인(T-P) 배출농도 강화 ▲취·정수장 정수약품 확보 ▲조류 유입 저감 장치 점검 등 대응 준비를 마친다.

녹조 발생에 따라 도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수돗물 안전 확보를 위해 낙동강 분류로에서 취수하는 도내 취·정수장 11곳에 조류저단막과 수면포기기, 살수장치 등을 가동한다.

황민=김정명 기자 kjj@siminilbo.co.kr



오산천 불법 시설물 점검

경기 오산시는 최근 대동령 지사시영인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 정비'에 맞춰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오산천 일대 불법 시설물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운영이 시장 권한대행인 김재민은 이날은 계곡 오산천 일대 불법 시설물 현황을 방문하고 현황을 살피는 모습.

강남구, 풍수해 대응력 UP... 침수 피해 예방

12일 탄천 일대서 실천형 방재훈련... 실무자 교육도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탄천 세월2교 일대서 '2026년 풍수해 대비 실무자 교육 및 방재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효과적인 풍수해 대응체계 구축과 침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강남구 치수과를 비롯해 22개 동주민센터 수방담당 실무자, 강남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이 참여한다.

풍수해 교육에서는 올해 기강전방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계획, 풍수에 안전대책 중점 추진사항, 상황 발생시 단계별 대응요령 등을 공유한다.

이어 탄천 세월2교 일대에서 실천형 방재훈련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수중펌프와 엔진양수기 작동법을 직접 익히고, 이동식·휴대용 임시 플라야판 설치 훈련에도 참여한다.

정비 사용자 안전수칙은 물론, 침수 상황에서 어떤 준비를 먼저 투입하고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까지 현장에서 몸으로 익히게 된다.

구는 현재 수중펌프와 엔진양수기 등 모두 1124대의 수방 장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침수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수중펌프 사전 대여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장비는 지역별 동주민센터를 통해 무료로 빌릴 수 있어 집중호우 때 주민들의 초기 대응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전곡역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

연천군, 주말·공휴일엔 제외

경기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은 자원안보위기 '결핵' 단계 발령에 따른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6일부터 전곡역 공영주차장에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기준 요일별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평일 유료 운영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한해 적용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 및 무료 개방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국가유공자·일반부·미취학 유아 등 중 차량과 전기차, 수소차, 특수목적 차량, 그밖에 공공기관차의 필요성을 인정해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곡역 노상 공영주차장과 전통시장, 먹자골목 공영주차장은 이번 5부제 시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단은 시행에 앞서 현수막 설치 및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이용객 혼선을 최소화하고, 시행 이후 이용 현황 및 민원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연천=조현기 기자 cho2@siminilbo.co.kr

이달 검문소 '스마트 출입' 착공

(4곳)

인원 강화군

인원 강화군이 대면 검문 체계의 역사적 전환에 본격 시동을 건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지난 3월31일 해병대 제2사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이달 중 교통 검문소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4곳 검문소를 스마트 출입 체계로 전환하는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군사적 통제 중심의 기존 대면 검문 방식을, CCTV를 활용한 하이패스식 비대면 출입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인원=문신기 기자 mcs@siminilbo.co.kr

서초 IC~한강 '길마중 초록숲길' 완성

區, 산책로 넓히고 친화형 쉼터 조성

서울 서초구는 경부고속도로변 녹지에 조성된 '길마중 초록숲길' 3단계 구간 정비를 완료하고, 서초IC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도심 속 힐링 산책로를 완성했다고 6일 밝혔다.

'길마중 초록숲길'은 약 4.5km 길이의 산책로로, 메타세쿼이아 등 울창한 수목이 만든 그늘 속에서 주민들이 즐겨 찾는 산책 공간이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재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다양한 테마를 갖춘 산책 환경 조성

과 함께 한강까지 연결되는 연속된 보행로를 구축하는 '길마중 초록숲길 조성사업'이 추진됐다.

앞서 구는 2024년 잠원IC~신사IC가교(약 0.6km) 구간에 맨발길과 휴게·운동 공간을 조성하는 1단계 정비를 실시한 데 이어, 2025년 서초IC~서초1교(약 1.3km) 구간에는 ▲산책로 확장 ▲무장애길 조성 ▲순환형 맨발길 ▲체력

자원안보 위기... 버스 5개 노선 임시 증편

수원시, 차량 10대 추가 투입

출·퇴근 시간대 불편 최소화

경기 수원시가 자원안보위기 상황에 대응해 일반 시내버스 3개 노선(300·301·900번)과 광역버스 2개 노선(7770·7780번)을 임시 증편 운영한다.

중등 전경 장기화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과 승용차 5부제(공공기관 2부제)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원안보위기경보 해제까지 총 5개 노선에 차량 10대를 추가 투입해 하루 26회 증편 운영한다.

경기도 공공관리체 노선 중 출퇴근 시간대 이용 수요가 높은 장거리 노선 30선으로 선정됐다.

300번, 301번 노선은 평막, 오산에서 수원을 거쳐 의왕, 안양을 연결하고, 900번 노선은 수원과 안양, 시흥·구로를 잇는다.

수원=임종민 기자 lim@siminilbo.co.kr

내달 6일 현충원 수송버스 운행

(국립서울대)

구로구, 7~22일 유가족 신청 접수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윤)는 오는 6월6일 제7회 현충일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을 오가는 무료 수송버스를 운영한다.

수송버스는 총 9대로, 이 가운데

대 서울현충원행은 3대가 편도(상행)로 운행된다.

대전현충원행 버스 6대는 왕복으로 운행되며, 오전 6시 구경 후문에서 일제히 출발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7일부터 오는 22일 까지로,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박신기 기자 zini@siminilbo.co.kr

상관없는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진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Waterworks Headquarters Incheon Metropolitan City

안습니다

많은 것을 바꿔 가고 있지만
'시민에게 맑은 물을 드린다'는 진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시민을 위해 흐르겠습니다.

전문인력 확충, 체계적인 역량 강화, 정수시설 개선으로 정수질을 탁발했습니다.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국제인증으로 더 깨끗했습니다.
· 2021.9.2. 국제인증 획득

시민께서 인천수돗물에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 인천하늘수